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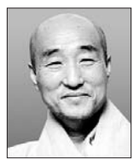
파라미타 전국청소년 등작품 공모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10월 29일까지 G20정상회의 기념 전국 청소년 등작품 공모를 실시한다. (02)723-6165



승가원 자비나눔 바자회

승가원 이사장 태원 스님은 10월 15일 서울 안암동 승가원 앞마당에서 승가원 행복타운 건립기금 마련 자비나눔 바자회를 개최한다. (02)1688-0750



불암사와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10월 9일 남양주 불암사 대웅전 특설문대에서 2010 생명나눔의날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2)734-8050



법주사 보살계 수계대법회

보은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10월 12일 법주사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를 봉행한다. (043)543-4755



인드라망 청년학교 이론 교육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서울 인드라망교육도량에서 10월 4~22일 5회에 걸쳐 청년학교 이론 교육을 실시한다. (02)2654-1866



2010 청량사 산사음악회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10월 2일 청량사 일대에서 2010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02)723-9836



청정승가대중결사 10월 아카데미

청정승가대중결사 의장 진오 스님은 10월 11일 서울 템플스테이센터에서 '불교명상음악과 나의 삶'을 주제로 10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02)732-1209



삼보조계종 해상용왕대재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0월 11~14일까지 제4회 문무대왕해상용왕대재를 봉행한다. (055)338-0050



국행수륙무차평등대재 학술대회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10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행수륙무차평등대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02)359-8410



동국장학회 2학기 장학금 전달

이연택 동국장학회 이사장(동국대총동창회장)은 9월 27일 동국대 재학생 1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 11월 15일 개원하는 국제선센터 주지 현조 스님

"한국불교 세계화에 이바지"



"한국불교 세계화의 중심으로, 서울 서남권 포교와 교육 · 문화 · 수행의 정법을 펼치는 도량이 되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국제선센터 전경. 내 · 외국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11월 15일 문을 연다.

한국불교 세계화의 중심에 설 조계종 국제선센터가 11월 15일 개원법회를 개최한다. 개원에 앞선 9월 28일 주지 현조 스님(사진)은 서울 견지동 모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선센터 운영계획 등을 밝혔다.

현조 스님은 "종단 초유의 사업인 국제선센터에 거는 불자들의 기대가 큰 것을 알고 있다. 국제선센터는 간화선 종주국인 한국불교의 위상과 역할을 드높이고 세계화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만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국제선센터가 위치한 양천구 목동은 대형교회가 여럿인 반면, 사찰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불교의 불모지인 서울 서남부지역의 거점 사찰로 수행 중심의 포교와 교육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국제선센터는 언제, 어느 때 방문해도 내외국인이 함께 참선할 수 있는 선방을 운영한다"면서 "한국불교 선문화 및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를 견인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제선센터의 법회는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법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을 위해 동시통역 시스템을 갖췄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는 외국인 전용 법회인 담마토크(Dhamma talk)도 연다. 담마토크에서는 불교교리 및 예절 등이 영어로 진행된다. 또,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탐방 및 불교전통문화체험 등으로 특화된 국제선센터만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특징이다.

내국인을 위해서는 회원제로 시민선방을 운영한다. 선원장 효담 스님의 지도로 참선 실수를 하게 될 시민선방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현조 스님은 "도심포교 거점 사찰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법회와 기도, 교육, 지역민과 이주민(외국인 노동자)을 대상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도 확대 및 불교 홍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국제선센터'라는 명칭이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낯설다는 목소리도 있어 법당에 별도로 '00사'라는 절이름을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선센터에서는 새신도교육->기본교육->전문교육->심화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불자양성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또, 안근청정문화(사경/불화그리기/사찰탐방), 이근청정문화(명상음악/찬불가/범패 및 의식이해), 비근청정문화(향기치유요법/향 만들기), 설근청정문화(사찰전통음식/차와 명상), 신근청정문화(선체조/요가/선문도/선무), 의근청정문화(자비명상/용서명상) 등 육근청정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현조 스님은 "육근청정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불자들이 각기 관심분야에 맞는 소모임을 조직해 불교문화 홍보와 문화선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법회, 청소년법회, 청년법회 등 계층법회를 통한 신도조직도 갖출 예정이다.

"지역 불자를 중심으로 신도회가 조직되면 군인법회, 경찰법회, 교도소법회, 병원법회, 공항법회 등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한 신행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현조 스님은 "모든 법회에는 원칙적으로 내외국인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이 국제선센터의 가장 큰 특징이다. 동시통역 시스템을 활용해 외국인이 내국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제선센터는 개원에 앞서 10월 5일 점안식을 봉행한다. 이어 7일 제1기 불교기본교육을 개강하고, 10일 국제선센터 첫 법회를 봉행한다. 15~17일 국군총신도회 템플스테이를 개최하며, 25일 국제선센터 내 선원을 개원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02) 2650-2200

조동섭 기자

■ 태고종 새 집행부 구성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인공)은 개정 총무원법에 따라 9월 28일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2인에서 1인으로 조정된 부원장에는 재무부원장 화경 스님이 유임됐다. 또 5개 부서로 축소된 각 부서장에는 총무부장 상하 스님, 교무부장 법경 스님, 재무부장 혜산 스님, 문사부장 법운 스님, 규정부장 구산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종무위원에는 완월 · 고담 스님(종무), 경보 스님(교임), 능해 스님(교류), 문화종무특보에는 법현 스님이 임명됐다.

태고종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16일 열린 제10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행된 것이다. 개정 총무원법은 총무원 부원장 정수를 1인으로 하고, 부서도 5개 부서로 통폐합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운문사 명성스님 출판기념회



전국 비구니회 회장이자 운문사 승가대학, 대학원장인 명성 스님은 비구니교육사의 산증인이다.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 제자들에 의해 발간돼 출판기념회가 9월 27일 열렸다.

운문사 승가대학 학인과 동창회 스님 500여 명은 운문사 경내에서 <매사에 진실하라>를 비롯한 명성 스님의 법문집과 <꽃의 웃음처럼 새의 눈물처럼> <후박꽃 향기> 등 3권을 불전에 봉정하는 봉정식을 개최했다.

스님들은 "40년간 운문사에 주석하며 1700여 명의 제자와 13명의 전강제자를 배출한 비구니 교육에 헌신한 명성 스님의 뜻을 기리고 나누기 위해 법문집 등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법주사, 금오 스님 추모 42주기 다례재



9월 24일 법주사에서는 불교수행관 상량식이 개최됐다. 금오 스님 추모다례제 이후 참여한 대중스님들이 불교교육 활성화를 서원하고 있다.

속리산 법주사(주지 노현)는 9월 24일 태전당 금오 대종사 추모 42주기 다례재와 불교수행관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금오 대종사 다례재는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스님,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 등 문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다례재 후 스님들은 경내 금오 대종사 부도탑을 참배한 후 스승의 뜻을 기렸다.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은 금오 스님의 유훈을 회고하며 "갈수록 금오 스님의 모습이 확연하고 그 음성이 더욱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오만교육을 내리셨고 그 어느 선사보다도 소중한 선의 진면목을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며 "유훈에 따라 촌각을 다퉈 열심히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신축중인 법주사 불교수행관 신축 현장에서 상량식이 봉행됐다. 불교 수행관은 법주사의 오랜 숙원 사업인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건립되며 5950㎡(1800평) 대지 위에 총공사비 38억80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364㎡로 지상1층(한식목구조), 지하1층(철근 콘크리트조)로 신축된다. 현재공정율은 80%로 올 연말 완공하여 내년 개관할 예정이다. 혜철 충청지사장